

태풍 '솔릭' 만반의 태세

임실군, 재해위험지구 산사태 집중 관리 점검 조치

임실군이 제 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른 호우 및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삼민 군수는 21일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호우 및 강풍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위험지구 등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점검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한다"고 강력 지시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 및 예·경보시설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하여 13개 협업분야 및 유관기관 상황 근무자 교육도 실시했다. 지속적 예찰 및 통제



임실군 제19호 태풍 '솔릭'의 북상에 따른 호우 및 강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 방재단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교통관서 합동 사전통제 강화를 통한 교통대책을 세우는 한편 SNS를 통한 상황전파 및 국민행동요령 집중홍보 등 홍보대책도 강화하고 나섰다.

삼민군수는 "취약지역 위험요인 사

전제거를 통한 인명 및 재산보호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점검하다"며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농어촌공, 태풍대비 농업시설물 점검점검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박재근 지사장은 21일 오전,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로 북상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급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박 지사장은 대책회의 후 금지면 귀석배수장을 방문해 폭우에 따른 침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사전조치를 주문했으며, 원활한 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수문과 경보장치, 비상전력 등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을 통해 수로의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해 농경지 등의 침수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남원시청 등 유관기관 및 긴급복구동원업체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재근 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21일 금지면 귀석배수장을 방문해 태풍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지사장은 "관내 농업인들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저수지 하류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도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국비 90억 확보

2019~2023까지 노후관 정비 우수율 제고사업 168억투자

순창군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국가예산 9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며 민선 7기 국비확보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특히 군은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평가 결과'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이번 2019년 사업에 추가 5억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해 순창군 수도행정 우수성과 개선 의지를 톡톡히 입증했다.

군은 이번 국비예산 확보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총 168억원을 투자한다.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며 순창군 6개 상수도 급수구역인 순창읍, 동계·유등·풍산·복흥·구립면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군은 사업을 통해 노후된 상수도 관로 교체, 누수탐사 및 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관로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한파와 겹쳐 발생한 누수민

원도 38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국비확보 순창군의 낮은 상수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누수율을 줄이고 주민들이 깨끗한 상수도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행정안전부 지방상수도요구 적정화 목표에 맞춰 사업종료 시점까지 상수도 사용료도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춘향골 체육공원에 국제공인 실외테니스장과 롤러 하키장을 추가로 확충하고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

지리산 스포츠 중심도시 '자리매김'

남원시 인라인 전국체전 전지훈련지 활용

남원시가 공격적인 체육시설 확충으로 명실상부한 지리산 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실외 테니스장과 롤러 하키장은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남원을 찾는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으로, 테니스장(4면)과 다목적 롤러 하키장은 사업비 25억100만원(국비 7억2,300만원, 도비 4억 9,350만원, 시비 12억9,350만원)을 투입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9월과 10월에 열리는 국제 인라인대회와 전국체전 전지훈련 및 경기장으로 테니스장과 롤러 하키장을 먼저 사용한 뒤 연말쯤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테니스장은 하드코트형 공법을 적용해 배수가 잘되고 겨울에는 눈이 빨리 녹아 수명이 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롤러 하키장은 다목적 시설로 배드민턴, 족구장으로 함께 사용할 계획이며, 경기 최상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LED 조명시설과 부대시설 등도 갖추었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국가지원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4면 규모의 실외 테니스장, 축구장, 수영장, 배드민턴, 족구장 등 공공생활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해 시민들의 체육증진과 명실상부한 전지훈련 명소로 만들자는 방침이다.

순창군, '미세먼지 꼼짝마'

2억여원 투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순창군이 미세먼지 오염 현상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해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2억여원을 투자해 군 옥상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은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시설로 주민들이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순창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알 수 있어 야외활동 자제와 미세먼지 농도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정확한 미세먼지 현황을 측정해



향후 상황에 맞는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정도감사 및 시운전 등을 진행하고 9월말 경에는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로 인해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제8회 최갑석 가요제 신청 접수

임실군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최갑석 가요제 참가신청을 받는다.

군은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간 열리는 '2018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열리는 '제8회 최갑석 가요제' 참가신청을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접수한다.

최갑석 가요제 참가신청은 방문접수(문화관광치즈과 또는 읍 면사무소)를 비롯한 팩스,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예심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관촌 사선대내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게 된다.

'최갑석 가요제'는 오는 10월 7일 오후 7시부터 치즈테마파크 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150만원을 포함한 총 상금 320만원이 지급되고 가수인증서도 함께 수여하며, 정상급 가수들의 무대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갑석 가요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화관광치즈과(063-640-231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찾아가는 싱싱생생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주민들의 건강관리 시책 사업 일환으로 '싱싱생생 건강교실' 40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고 사업장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건강관리에 취약한 전통 재래시장인 남원 용남시장 상인회를 찾아 주2회(화,목)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이에 따른 건강관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보건소에서는 전통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건강관리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싱싱생생 건강교실에서는 근력강화를 위한 건강체조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레크레이션 등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순례 소장은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맞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